

HOME > 로컬+ > 강원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반계저수지서 통수식 개최

✎ 김정호 기자 | ⌚ 승인 2026.04.10 16:08

본격 영농철 시작 알려...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다짐



[사진=김정호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통수식을 열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

공사 원주지사는 지난 10일 원주시 문막읍 반계저수지에서 '강원지역본부 대표 통수식'을 개최하고 풍년과 안전한 영농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통수식은 모내기 시기에 맞춰 수문을 열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리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행사로 농업의 중요성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김정호 기자]

이날 행사에는 김준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인환 문막읍장, 곽후신 문막농협협동조합장, 지역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급수계획 보고, 감사패 수여, 풍년기원 떡 절단, 수문 개방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가 열린 반계저수지는 1958년 준공된 시설로, 하류 농경지 약 175.9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원주시사가 관리하는 16개 저수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춘 곳으로, 총저수량은 283만 9천 톤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일 기준 저수율이 100%를 기록하며 평년 대비 13.5%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남기두 원주시사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반복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수리시설 운영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